



이걸 어쩌나... K리그 ACL 6경기서 단 '1승'

전북·울산·서울·수원 중 서울만 승리... 1승 2무 3패
K리그 개막 늦춰져 타 리그에 비해 컨디션 관리 문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서 'K리그 4룡'의 스타탄가 굼뜨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기 감각 저하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 FC서울, 수원 삼성의 조별리그 전적은 6전 1승 2무3패다.

서울만 펠버론 빅토리아(호주)를 상대로 홈에서 1-0 승리를 거뒀을 뿐 다른 팀은 아직 승리 소식이 없다.

특히 K리그 디펜딩챔피언 전북과 수원은 2경기씩을 치렀지만, 시즌 첫 승 사냥에는 실패했다.

이들 팀이 3~4일 치른 원정 경기에서 나란히 무승에 그친 건 코로나19 탓에 K리그 개막이 연기된 데 따른 경기 감각 저하가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수원은 3일 조호르 탁집(말레이시아)과의 원정 경기에서 1-2로 졌다. 수원은 19일 빙셀 고베와 시즌 첫 경기를 치른 뒤 K리그 개막이 연기되면서 보름 만에 조호르와 시즌 2번째

경기를 치렀다. 반면, 조호르는 지난 달 12일 빙셀 고베(일본)와 ACL 첫 경기를 치른 데 이어 28일 말레이시아 슈퍼리그 개막전을 소화했다. 수원전은 조호르가 1주일 간격으로 가진, 시즌 3번째 경기였다.

전북 역시 수원과 마찬가지로 4일 시드니FC와의 원정 경기(2-2 무)가 시즌 2번째 경기였다. 요코하마 F마리노스와 첫 경기(1-2 패) 뒤 무려 3주 만에 시드니전을 치렀다. 전북은 90분 내내 뼈저렸었다. 홍성호는 공중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1-1 동점골 실점의 발미를 내쳤고 최보경은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고 퇴장까지 당했다. 공격수들은

있따라 결정적인 골 찬스를 놓쳤다. 시드니의 경기 감각은 전북과 정반대로 '최고조'에 올라있었다. 호주 A리그는 주중제로 치러진다.

2월이 되면 프로축구팀들은 시즌 준비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가장 중요한 건 연습경기 등으로 겨우 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선수들



K리그 전북 현대 모터스의 김진수 선수가 드리블을 저지당하고 있다. 지난 4일 전북 현대는 호주 시드니 주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드니 FC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H조 2차전 원정 경기에서 2-2로 무승부를 거뒀다.

간의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탓에 K리그 팀들은 시즌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K리그 개막이 연기돼 씩씩찍찍 경기 치르게 되면서 컨디션 관리에도 애를 먹었다.

여전히 K리그가 언제 개막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 감각

과 컨디션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올 시즌 K리그 4팀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한준희 해설위원은 "K리그 팀들은 K리그가 정상 개막하지 못해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리그를 뛰고 있는 팀들보다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기부 행렬... 모두 '한마음 한 뜻'

류현진 1억원 쾌척 이어 KIA 선수단도 1000만원 기부
남자배구 우리카드 선수단 '십시일반' 자발적 성금
동계체전 MVP 심석희 최우수상 상금 300만원 기탁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활동에 써달라며 1억원을 쾌척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류현진이 이날 계좌이체를 통해 1억원을 전달했다"라며 "류현진은 기부금을 방역 물품이 필요한대구·경북 의료진에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새 팀에서 맞는 첫 시즌이라 주변을 살필 틈이 없지만, 류현진은 코로나19 확산문제에 선뜻 소매를 걷었다.

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구단 대표와 선수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전지훈련 중인 KIA 선수들은 5일(한국시간) 훈련에 앞서 전체 미팅을 하고 KIA 선수단 상조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성금 1000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KIA의 에이스이자 양현종은 따로 1000만원을 쾌척했고, 선수단과 양현종의 기부 소식을 접한 이화원 KIA 타이거즈 대표이사도 개인적으로 1000만원을 적십자사 대구지사에 전달했다.

기부 행렬은 계속 이어졌다.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 주장 최영준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어 남자프로배구 우리카드 선수단이 코로나19의 극복을 지원하며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냈다.

신 감독 등 코치진과 우리카드 선수들은 3일 "코로나19를 위해 기부하자"고 뜻을 모았고, 4일 대구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송금했다. 선수단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기에 의미가 더 크다.

동계체전의 최우수선수(MVP)에 뽑힌 심석희도 기부행렬에 참가했다.

올해 동계전국체육대회에서 최우수선수(MVP)에 뽑힌 쇼트트랙 간판스타 심석희(23·서울시청)가 상금 300만원을 대구·경북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 성금으로 기탁했다.

심석희는 "오랜만에 참가한 동계체전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아 격려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자 하는 마음에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토트넘, 승부차기 2-3 패
FA컵 탈락... 4경기 무승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모두 부상으로 전열에서 빠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연장 혈투 끝에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6강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토트넘은 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노리치시티와 2019-2020 FA컵 16강전에서 120분 연장 접전 끝에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2-3으로 무릎을 꿇었다.

프리미어리그 최하위 팀인 노리치시티에 승부차기 승리를 내준 토트넘은 FA컵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날 승부차기 패배로 토트넘은 지난달 16일 애스턴 빌라와 2019-2020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에서 3-2로 승리한 이후 치른 4경기에 무승(1무 3패)의 부진에 빠졌다.

공교롭게도 토트넘은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이후 치른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연합뉴스

2002년 월드컵 주역들 이젠 'K리그 감독'

김남일·설기현·정정용 데뷔
K리그 감독 평균 나이 48세

올 시즌을 준비하는 22명(K리그 1 12명·K리그2 10명)의 사령탑들은 저마다 우승과 1부 리그 잔류, 1부 리그 승격을 바라보며 시즌 준비에 마지막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새 시즌을 준비하는 K리그1(1부 리그)과 K리그2(2부 리그) 사령탑 22명의 면면도 화려하다. 우선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활짝했던 '젊은' 감독들이 눈에 띈다.

K리그1에는 FC서울의 최용수(47) 감독과 성남FC의 김남일(43) 감독이 있고, K리그2에는 대전 하나시미즈의 황선홍(52) 감독과 경남FC의 설기현(41) 감독이 있다.

K리그 22개 구단 사령탑들의 평균 나이는 만 48세다. K리그2 FC안양의 김형열 감독이 56세로 최연장자다. 연합뉴스

최연소 사령탑은 설기현 감독과 K리그2 충남아산의 박동혁 감독으로 41살 동갑내기다.

K리그1 감독들의 평균 나이는 48.7세이고, K리그2 감독들의 평균 나이는 47.3세다. K리그2 사령탑들이 조금 더 젊은 편이다.

올 시즌 K리그 사령탑들의 '교체'도 적지 않았다.

K리그1에서는 성남의 김남일 감독을 비롯해 인천 유나이티드 임완섭 감독, 대구FC 이병근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다.

감독 교체는 K리그2가 많았다. 10개 구단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개 구단의 사령탑을 바꿨다.

경남의 설기현 감독, 대전의 황선홍 감독, 서울이랜드의 정정용 감독, 안산 그리너스의 김길식 감독, 제주 유나이티드의 남기일 감독, 수원FC의 김도균 감독이 '승격'에 도전하게 된다. 연합뉴스



이정도 쏜이아 쉽지 4월(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NBA) 인디애나 패이서스와 밀워키의 경기에서 밀워키가 119-10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텍스보청기 기준금액 13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텍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금~6급)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텍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텍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텍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로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텍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 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텍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텍스의 센소그래프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텍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9-GN18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텍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